

다쏘시스템, 인간과 함께 설계하는 버추얼 동반자 스킬로 AI 네이티브 에이전틱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확장

- 다쏘시스템의 버추얼 동반자 아우라, 레오, 마리, AI 네이티브 에이전틱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
- 버추얼 동반자는 사용자와 함께 창조하고 협업하며 깊이 있는 과학·산업 지식에 기반한 업무 역량 제공, 버추얼 트윈 팩토리를 향한 중요한 진전
- 프로그램 관리, 엔지니어링 및 시뮬레이션, 바이오사이언스 등 미션 크리티컬 지식·노하우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업무 수행

대한민국 서울, 2026 년 7 월 27 일 - 다쏘시스템(<https://www.3ds.com/ko>)은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아우라(AURA), 복합 엔지니어링을 위한 레오(LEO), 심층 과학 분야를 위한 마리(MARIE) 등 버추얼 동반자(Virtual Companions)를 3D 익스피리언스(3DEXPERIENCE) 플랫폼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업별 버추얼 트윈 팩토리(Virtual Twin Factories)도 함께 공개했다.

19 가지 역량을 갖춘 아우라, 레오, 마리는 사용자와 함께 창조하고 협업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제품과 자산,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복잡한 산업 과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각 역량은 여러 스킬로 구성되며, 비즈니스·제품 설계·엔지니어링·시뮬레이션·제조·운영에 이르는 산업 워크플로 전반에서 사용자를 안내하고, 보이지 않던 인사이트를 드러내며, 아직 다루지 않은 영역을 탐색하고, 관련 업무를 실행한다.

버추얼 동반자는 체계화된 산업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하고, 산업 맥락에서 추론하며, 의사결정을 내려 과학과 산업의 실체에 기반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파스칼 달로즈(Pascal DALOZ) 다쏘시스템 CEO 겸 회장은 "버추얼 트윈은 이미 모든 산업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기술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 우리는 버추얼 트윈 팩토리의 미래를 선보이고자 한다"며 "버추얼 트윈 팩토리는 인간과 대등하게 일하는 작업자로서의 버추얼 동반자, 고도로 자동화된 프로세스인 제너레이티브 익스피리언스(Generative Experiences), 사전 정의된 산업 월드 모델인 서비스형 버추얼 트윈(Virtual Twin as a Service)을 하나로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장"이라고 말했다.

버추얼 동반자는 다쏘시스템의 글로벌 클라우드-AI 사업자인 아웃스케일(OUTSCALE)이 3 개 대륙에 걸쳐 구축한 AI 팩토리에서 구동된다. 이러한 소버린 인프라를 통해 모든 규모의 고객사는 데이터와 지적 재산을 온전히 보호하면서 산업용 수준의 AI 를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다.

###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3D 설계 소프트웨어, 3D 디지털 목업 (DMU)과 제품 PLM 솔루션:
<https://www.3ds.com/ko/>

다쏘시스템코리아 소셜채널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다쏘시스템은 인류 발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다쏘시스템은, 1981년 설립 이후 소비자, 환자,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 세계를 개척해 왔다. 3D익스피리언스(3DEXPERIENCE) 플랫폼을 통해 AI 기반의 과학 중심 버추얼 트윈을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과 규모에 걸친 39만 개 이상의 고객이 협업하고, 상상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창출해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3d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

정지민 파트너 / PR & Communications 매니저

jeemin.jeong@3ds.com